AGAIN 기도회 특별메세지 Ⅴ.
완벽주의와 온전함의 차이

1. '가치'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다._디트리히 본 회퍼*

본 회퍼의 말이다. 순교하기까지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본 회퍼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다. 왜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히틀러에게 저항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 목사님의 말이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그가 그토록 강력하게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위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하고 죽어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회퍼의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구원해야 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셨다. 병자들, 죄인들, 낙오자들, 배고픈 자들, 삶이 고통인 자들에게 가셨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셨다. 안아주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던 죄인 한 사람까지 구원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가치'의 문제이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다. 그 절정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일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성찬이다. 이 사건의 핵심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존중'의 개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2. 완벽주의와 온전함
세상은 이와 반대이다. 존중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을 묻는다. 네가 그런 대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흠이 있는 제품을 누가 보겠는가?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을 향해 달린다. 조금의 틈도 허용될 수 없다. 완벽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한다. 이런 흐름이 기독교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요셉, 다니엘의 이야기이다. 모두의 공통점은 엄청난 핍박속에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가정의 '흠', 노아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술 취함의 '흠',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우울증과 같았던 '흠'에 대해서 냉정하다. 만약 이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놀라운 일들 또한 한 번에 묻혀 버리게 된다.

(1) 완벽주의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완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편히 사용하는 수단은 '비판과 정죄'이다. 그 기준에서 멀어지면 가차없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이 종교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다. 그것에서 멀어지면 가차 없이 비판했다. 정죄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세리를 향한 그들의 비교와 날카로운 비판을 보면 알 수 있다.

(2) 온전함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다. 가장 완벽하신 분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셨다. 예수님은 완벽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셨다.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종교는 완벽을 추구한다. (바울) 그러나 신앙은 온전함을 추구한다.
완벽주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흠을 용납하지 않지만, 온전함은 실패와 흠 자체를 용납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말한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 모습이 부족해도 숨김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세상의 완벽주의는 흠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함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바로 진정한 온전함이요. 완전함이다.

3. 질문

당신은 완벽한가?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곧장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음 질문은 좀 더 대답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적어도 몰래-바라는가"
_ '완벽주의에 작별을 고하다' _ by 코넬리아 마크

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 삶에 믿음의 증거들이 없는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답이다. 어게인 기도회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를 보라.

[출애굽기 3:10-12]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1절 모세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신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4. 존재적 선포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세를 보라. 존재적 선포이다. 미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적 선포는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 출애굽 - 광야 - 약속의 땅** : 이미 선포된 언약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한다. 막 사는 것이 아니다. 소망과, 긍정적 마음과, 희망이 중요하다. 존재적 선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온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이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선포를 나에게, 가족에게, 공동체에 선포하라. 믿음으로 오늘 낙망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존재를 향하여 외치라.